

대통령 가족의 이사

박정희 대통령 가족은 1953년 7월 서울 동숭동으로 이사 오면서 서울생활을 시작하였다. 신당동 가옥에는 1958년 5월부터 1961년 8월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관사로 이주하기까지 거주하였다.

President Park Chung-Hee and his family began living in Seoul in July 1953 when they moved to Dongsung-dong. They lived in Sindang-dong house from May 1958 to August 1961 when they moved to the official residence of the chairman of the Supreme Council for National Reconstruction.



현재 가옥 내부 모습



안방 Master Bedroom



자녀방 Children's room



영상실(옛 부엌) Screening Room(Previously Kitchen)



서재 Study



가옥 내부 배치도



관람 안내

관람시간 : 10시~18시(가옥은 관람시간 내 개방하나 내부관람은 사전 예약 필요)
내부관람 : 10시30분~17시30분
휴관일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 기념행사시(사전공지 예정)
관람료 : 무료
관람예약 :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http://yeyak.seoul.go.kr>) 이용
문의 : 120다산콜센터 02) 2231-5143, 02) 2133-2640



오시는 길



- 버스
 1. 신당역, 중앙시장
간선버스 N62, 147, 202, 421, 463, 지선버스 2012, 2014, 2015, 2233, 6211, 광역 9403
 2. 충무아트홀 중부소방서
간선버스 N62, 202, 463, 2233, 421, 광역 9403

※ 버스노선은 서울특별시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topis.seoul.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철
 - 2호선 : 신당역 3번 출구(도보로 15분)
 - 6호선 : 신당역 6번 출구(도보로 20분)
 - 5호선 : 청구역 2번 출구(도보로 20분)
- 주차공간이 없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朴正熙 家屋

박정희 가옥

박정희 가옥 (朴正熙 家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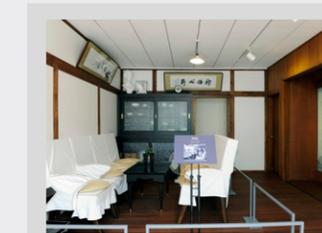
박정희 대통령이 육군 제7사단장이던 1958년 5월부터 1961년 8월 장충동의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공관으로 이주할 때까지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집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1년 이곳에서 우리나라 현대사의 큰 전환점이 된 5·16을 계획하였다. 이 가옥은 1930년대 후반 조선도시경영주식회사에서 신당동 문화주택지 개발로 조성한 가옥 중 하나로서 한국 주거사의 중요한 자료이다. 시멘트 기와지붕을 얹은 단층 목조건물로 일부 증축되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살던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This is the house that the late president Park Chung-Hee lived with his family from May 1958 until August 1961 when they moved into the official residence of the chairman of the Supreme Council for National Reconstruction.

It is an important historical location in Korea's modern history, as this is where Park Chung-Hee planned and directed the May 16 coup. The house is also an important material for Korea's housing history as it is a "cultural house" built in the 1930's.

自1958年5月至1961年8月迁移到奖忠洞国家再建最高会议的议长官邸，朴正熙前总统与家人一道生活在此地。朴正熙在此计划5·16军事政变，是韩国现代史上的重要历史现场。作为上世纪30年代盖建的“文化住宅”，也是韩国建筑史的重要资料。

朴正熙元大統領が1958年5月から1961年8月獎忠洞の国家再建最高會議議長公館に移住するまで、家族と共に居住した家である。朴正熙元大統領が「5·16軍事クーデター」を計画した場所で、韓国現代史において重要な歴史的現場だ。1930年代に建てられた「文化住宅」で、韓国住居の歴史の重要な資料でも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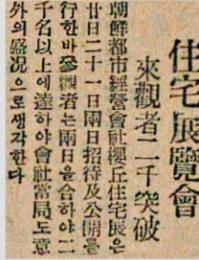
- 문화재 종별·번호 : 등록문화재 제412호
-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36가길 25
- 규모 : 면적 128.93㎡
- 건립연대 : 1930년대 후반

일제 강점기 문화주택

1920년대 서울에는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도성 외곽에 문화주택 단지의 개발이 시작되었다. '문화주택'이란 서양식 주거 문화를 지향하며 새롭게 유행한 가옥으로서 복도와 응접실, 식당 등 재래주택에서 볼 수 없었던 구조와 난방, 수도 등 근대적인 설비를 갖춘 개량 주택이었다.



조선도시경영회사에서 광화문 밖 (현재 신당동 지역)의 주택용지 분양을 개시한다는 기사 1932.7.8 매일신보



신당동일대에서 열린 주택전람회에 10월 20일, 21일 양일간 2천 명 이상의 관람자가 왔다는 기사 1934.10.23 매일신보



신당동 문화주택 건물 평면도 (문화주택도집, 1934)



문화주택 건물 사진 (문화주택도집, 19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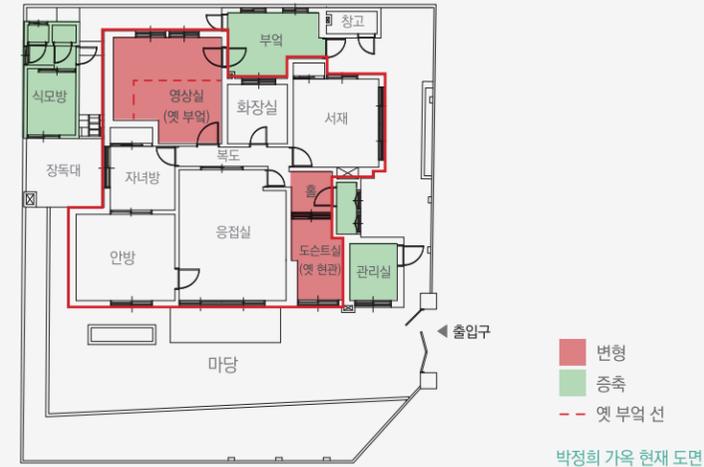
지금의 장충동과 신당동 일대에도 조선도시경영주식회사에 의해 1932년, 1934년, 1938년 3차례에 걸쳐 격자형 도로를 갖춘 '문화주택' 단지가 들어섰다. 이 가옥은 신당동에 유일하게 남은 문화주택이다.

In the 1920's, in order to solve its housing problems, the city of Seoul began developing a cultural house compound on its outskirts. A "cultural house" was a house improved from the traditional house with modern facilities such as heating and waterworks and a layout that included corridors, parlors and dining rooms that were never before seen in traditional houses. It was a new type of house that took off as Koreans began aspiring to a western living culture. Even in areas now known as Jangchoong-dong and Sindang-dong, Joseon Urban Management Co., Ltd, introduced "cultural house" compounds with grid pattern roads in three stages (1932, 1934 and 1938). This House is the only cultural house that remains in Sindang-dong.

가옥의 변화

육영수 여사는 가옥을 생활하기 편리하게 수리하였다. 원래 검은 지붕이었으나 붉은 기와를 얹었고, 창고와 방 1개를 증축했으며, 마루와 부엌, 베란다를 수리하였다. 담장과 대문도 새로 세웠는데 대문은 세 쪽 짜리 문으로 바꾸었다. 뜰에는 앵두나무, 유자나무, 벽오동, 백목련, 향나무, 장미 등을 심었고, 서재 앞에는 라일락을 심었다. 현재 영상실은 부엌이 있던 곳이다. 원래 마루였던 곳을 시멘트 바닥으로 교체하고 입식 조리대를 설치하였다.

First lady Yuk Young-Soo renovated the house for a more convenient living. The Japanese style single story house exterior slowly took on a new look. Red tiles were put on the black roof, a storage space and a room was added, and the floor, kitchen and verandah were repaired. A new fence and a new gate were built, the gate comprising three panels. In the garden, she planted her favorites such as a cherry tree, a citron tree as well as planting the president's favorite, lilacs, in front of the study. During the restoration project in 2010-2011, the house was restored to what it looked like while the late president's family lived in the Sindang-dong house based on photos, newspaper articles and testimonials of that time.



주한외국대사 부인 집견 1961.8.4

대통령 가족

[가계도]



육영수 여사는 1925년 충청북도 옥천군 교동에서 태어났다. 1942년 배화고등여학교 (현 배화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945년부터 47년까지 옥천여자전수학교 (현 옥천여자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다. 1950년 6·25 전쟁 중 당시 육군 중령이던 박정희와 혼인하여 슬하에 근혜·근령·지만 1남 2녀를 두었다.



결혼식기념 촬영 1950.12.12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공관에서

육영수 여사는 1963년 양지회를 설립하여 양로원과 고아원을 위문하고 전물군경 미망인 자활운동, 빈민돕기 등 사회활동을 하였으며, 1971년 어린이 회관 설립, 정신박약아동 돕기 운동 등 어린이를 위한 사업과 한센병 환자의 복지사업도 펼쳤다. 1974년 8.15 광복절 기념식이 열린 서울 국립극장에서 저격범 문세광의 흉탄에 세상을 떠났다.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공관에서

First lady Yuk Young-Soo was born in Okcheon-gun, Chungcheongbuk-do in 1925. After graduating from Paiwha Girl's High School in 1942, she worked as a teacher from 1945 to 1947 at Okcheon Girls' Middle School. During the Korean War in 1950, she married Park Chung-Hee who was a lieutenant colonel in the army. They had a son and two daughters, Park Geun-Hye, Park Geun-Ryeong and Park Ji-Man.

전시물 소개



『국가와 혁명과 나』 (The Country, the Revolution and Me) 1963년 박정희



『박정희장군문』 (About Park Chung-Hee General) 1961년 이낙선



재건국민운동본부 발간 책자들
 - 『재건생활』 (National Reconstruction Life) 1961년 7,8호
 - 『재건통신』 (National Reconstruction News) 1962년 1호



『국가재건최고회의의 법령총집』 (Complete Collection of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Supreme Council for National Reconstruction) 1961년

국회기능을 대행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각종 입법을 추진하면서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한 내용들을 묶어 「속보」 형식으로 출간한 것이다.



『사상계』 (Sasangge) 1961년 5, 6월호
 민족·분단·민주주의 등 당대 지식인들의 관심사를 다루고 있다.



여성지 『가정생활』 (Family Life) 1961년 3월호, 유한양행
 여성의 사회진출상과 당시 가정의 모습, 생활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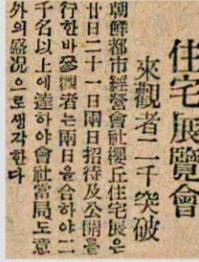
학생잡지 『학원』 (Hagwon) 1961년 9월호
 세종대왕 등 위인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 문화주택

1920년대 서울에는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도성 외곽에 문화주택 단지의 개발이 시작되었다. '문화주택'이란 서양식 주거 문화를 지향하며 새롭게 유행한 가옥으로서 복도와 응접실, 식당 등 재래주택에서 볼 수 없었던 구조와 난방, 수도 등 근대적인 설비를 갖춘 개량 주택이었다.



조선도시경영회사에서 광화문 밖 (현재 신당동 지역)의 주택용지 분양을 개시한다는 기사 1932.7.8 매일신보



신당동일대에서 열린 주택전람회에 10월 20일, 21일 양일간 2천 명 이상의 관람자가 왔다는 기사 1934.10.23 매일신보



신당동 문화주택 건물 평면도 (문화주택도집, 1934)



문화주택 건물 사진 (문화주택도집, 19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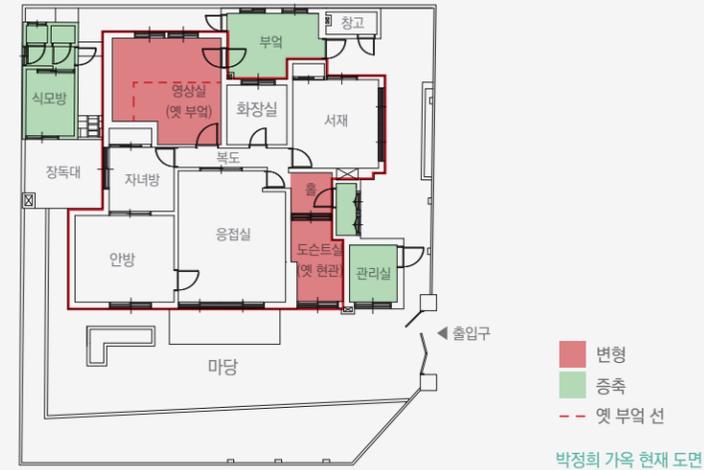
지금의 장충동과 신당동 일대에도 조선도시경영주식회사에 의해 1932년, 1934년, 1938년 3차례에 걸쳐 격자형 도로를 갖춘 '문화주택' 단지가 들어섰다. 이 가옥은 신당동에 유일하게 남은 문화주택이다.

In the 1920's, in order to solve its housing problems, the city of Seoul began developing a cultural house compound on its outskirts. A "cultural house" was a house improved from the traditional house with modern facilities such as heating and waterworks and a layout that included corridors, parlors and dining rooms that were never before seen in traditional houses. It was a new type of house that took off as Koreans began aspiring to a western living culture. Even in areas now known as Jangchoong-dong and Sindang-dong, Joseon Urban Management Co., Ltd. introduced "cultural house" compounds with grid pattern roads in three stages (1932, 1934 and 1938). This House is the only cultural house that remains in Sindang-dong.

가옥의 변화

육영수 여사는 가옥을 생활하기 편리하게 수리하였다. 원래 검은 지붕이었으나 붉은 기와를 얹었고, 창고와 방 1개를 증축했으며, 마루와 부엌, 베란다를 수리하였다. 담장과 대문도 새로 세웠는데 대문은 세 쪽 짜리 문으로 바꾸었다. 뜰에는 앵두나무, 유자나무, 벽오동, 백목련, 향나무, 장미 등을 심었고, 서재 앞에는 라일락을 심었다. 현재 영상실은 부엌이 있던 곳이다. 원래 마루였던 곳을 시멘트 바닥으로 교체하고 입식 조리대를 설치하였다.

First lady Yuk Young-Soo renovated the house for a more convenient living. The Japanese style single story house exterior slowly took on a new look. Red tiles were put on the black roof, a storage space and a room was added, and the floor, kitchen and verandah were repaired. A new fence and a new gate were built, the gate comprising three panels. In the garden, she planted her favorites such as a cherry tree, a citron tree as well as planting the president's favorite, lilacs, in front of the study. During the restoration project in 2010-2011, the house was restored to what it looked like while the late president's family lived in the Sindang-dong house based on photos, newspaper articles and testimonials of that time.



박정희 가옥 현재 도면



주한외국대사 부인 집견 1961.8.4

대통령 가족

[가계도]



육영수 여사는 1925년 충청북도 옥천군 교동에서 태어났다. 1942년 배화고등여학교 (현 배화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945년부터 47년까지 옥천여자전문학교 (현 옥천여자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다. 1950년 6·25 전쟁 중 당시 육군 중령이던 박정희와 혼인하여 슬하에 근혜·근령·지만 1남 2녀를 두었다.



결혼식기념 촬영 1950.12.12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공관에서

육영수 여사는 1963년 양지회를 설립하여 양로원과 고아원을 위문하고 전몰군경 미망인 자활운동, 빈민돕기 등 사회활동을 하였으며, 1971년 어린이 회관 설립, 정신박약아동 돕기 운동 등 어린이를 위한 사업과 한센병 환자의 복지사업도 펼쳤다. 1974년 8.15 광복절 기념식이 열린 서울 국립극장에서 저격범 문세광의 흉탄에 세상을 떠났다.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공관에서



First lady Yuk Young-Soo was born in Okcheon-gun, Chungcheongbuk-do in 1925. After graduating from Paiwha Girl's High School in 1942, she worked as a teacher from 1945 to 1947 at Okcheon Girls' Middle School. During the Korean War in 1950, she married Park Chung-Hee who was a lieutenant colonel in the army. They had a son and two daughters, Park Geun-Hye, Park Geun-Ryeong and Park Ji-Man.

전시물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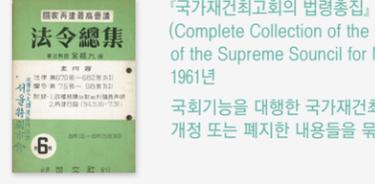
『국가와 혁명과 나』 (The Country, the Revolution and Me) 1963년 박정희



『박정희장군론』 (About Park Chung-Hee General) 1961년 이낙선



재건국민운동본부 발간 책자들
- 『재건생활』 (National Reconstruction Life) 1961년 7,8호
- 『재건통신』 (National Reconstruction News) 1962년 1호



『국가재건최고회의의 법령총집』 (Complete Collection of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Supreme Council for National Reconstruction) 1961년
국회기능을 대행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각종 입법을 추진하면서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한 내용들을 묶어 "속보" 형식으로 출간한 것이다.



『사상계』 (Sasangge) 1961년 5, 6월호
민족·분단·민주주의 등 당대 지식인들의 관심사를 다루고 있다.



여성지 『가정생활』 (Family Life) 1961년 3월호, 유한양행
여성의 사회진출상과 당시 가정의 모습, 생활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학생잡지 『학원』 (Hagwon) 1961년 9월호
세종대왕 등 위인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